

## 李退溪와 現代生活\*\*

전연 리우 (Ts'unyan Liu)\*

• 目 次 •

I. 序 論	IV. 宗教에 대한 태도
II. 血緣的 유대	V. 分析的 사고
III. 青年과 學生운동	VI. 結 論

### I. 序 論

1985년 9월 일본의 쓰꾸바 대학에서 개최된 제8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를 마친 후 나는 방문교수로서의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립대학으로 돌아왔다. 우연히 싱가포르 교과개발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고등학교 3학년과 4학년 학생용 유교윤리 교재 편집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퇴계(李滉, 1501~1570)의 소형 초상화와 陶山書院(이퇴계를 모신 서원) 건물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사진들을 구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지를 물었다. 퇴계연구소 이사장인李東俊씨와 영남대학교 중문학과 李章佑교수의 친절한 도움으로 나는 한국은행 지폐의 축소판 그림을 포함하여 퇴계의 초상화 몇 장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쓰꾸바 대학 철학 연구소의 高橋進교수도 내가 쓴 바 있는 山崎闇齋의 사진을 친절히 보내주었다.

\* 오스트레일리아대학 명예교수

\*\* 원제 : Yi T'oegye and Modern Life. 이 논문은 제9차 퇴계학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임.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55호(1987) 게재논문

앞서 언급한 사람들의 친절함 도움 덕분에 싱가포르 교과서에 “동아시아에서의 유교사상의 영향”이라는 제하의 단원에서 이퇴계와 안사이 두 사람이 함께 삽화와 더불어 실린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싱가포르 정부는 1982년 이래 유교윤리에 대한 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해오고 있다. 이 특별한 교과는 도덕 교육의 몇 가지 선택과목 중의 하나인데 도덕은 학생들의 특정그룹(즉 3, 4학년)에 대해서는 필수 과목이다. 유교윤리 외에 다른 선택 과목들은 전부 종교 과목들이다. 그것들은 4대 주요 종교 즉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에 관한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유교윤리 나아가 유교사상은 반드시 종교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굳이 종교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비록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언젠가 “종교의 다양성이 아무리 서로 다르더라도 정부는 국민들이 아무 것도 믿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믿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무신론을 인정하는 사람보다는 한 사람의 이슬람 교도나 한 사람의 신앙심 깊은 힌두교도를 갖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싱가포르에서의 도덕 교육을 논한 그의 기사 중의 하나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呂武吉 박사는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있다.

유교윤리를 소개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유교윤리가 완벽하게 비종교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생들에게 종교적 연관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될 수 있다. 둘째, 이광요 수상은 도덕 교육의 수단으로서 종교적 지식이 아무리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는 없다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명백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수상이 그의 할머니 슬하에서 유교적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싱가포르의 제1부 수상 겸 교육부 장관인 吳慶瑞 박사에 의해 언론에 공표된 바도 있다. 세 번째, 이수상과 오박사 둘 다 일본의 경제적 발전과 성공에 엄청난 감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이 유교윤리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여박사는 오경서 박사에 의한 다음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서양의 반체제 문화가 발달했을 때, 그것을 경멸한 사람은 중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 중 교육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것에 심취했다. 반면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것은 싱가포르의 생활이 조정되어야 할 방식이라고 믿으며 서양의 자유로운 철학을 수용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유약한 서구적 선택을 지향한다면 우리는 곧 파멸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싱가포르와 같은 다문화 및 복합사회에서, 중국식으로 교육된 사람과 서구식으로 교육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간단하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오 박사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룹에서 이 사람들은 사실 다양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고, 각각 다른 수준에서 변화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유교주의인 전통적 중국 문화에는 뭔가 본질적 가치가 있음이 틀림없다는 그의 충실한 신념에는 감복할 만하며, 그것은 어느 정도는 정당한 것이다. 이광요 수상의 말은 더욱 특징적이고 구체적이다. 예컨대 언젠가 그는 가족 응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튼튼한 가족 구조는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 연속성을 위해 매우 큰 힘이 되어왔다. 가족은 형식적 교육에 의해서 보다는 삼투성에 의해서 사회적 가치를 전승해 왔다.

가족의 결합이 현대적 서양 환경 하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다. 싱가포르의 교과서는 한국의 몇몇 초기 유학자들 및 그와 동시대 사람 중의 한 명과 함께 퇴계의 초상을 그렸다. 관련된 페이지(p.118)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13세기가 되었을 때, 재상이 된 유학자 安裕(1243~1306, 후에 이름을 安珣으로 바꿈)는 朱熹(1130~1200)의 절대적 신봉자였고, 해동의 朱子로서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 의해 칭송을 받았다. 그는 또한 중국의 성현에 의해 사용된 가명의 하나를 좇아 자신을 晦軒(중국어로 후익슈안)이라 칭했다. 그의 제자들에 의해 주희의 많은 작품들이 大都(몽골의 수도)로 부터 한국으로 전해졌다. 그 때 이래로 한국에서는 주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해 졌다.

14세기 말경, 한국은 이씨 왕조에 의해 통치되기 시작했다. 조선의 건국자 태조는 유교에 대해 큰 경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교 사상 연구 기관인 성균관을 설치했다. 이 기관에 명륜당(인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유교사원과 강당)을 지었다. 이것은 공자와 다른 현인 그리고 다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경배하기 위함이었다. 이씨 왕조의 많은 유학자들이 주희의 사상을 꿰뚫어 연구했다. 그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인물들이 이퇴계와 이율곡(李珣, 1536~1584)이었다.

비록 이 교과서가 칭찬과 더불어 역사적 서술은 명백히 하고 있지만, 4백년 이상의 시간적 격리성과 우리가 더 이상 그가 살던 시대의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군주적인 체제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현대에 있어서 도덕 교육에 대한 지침으로써 퇴계의 가르침을 완전히 수용하여 나타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혼동과 격동의 현대사회는 근본적으로 물질적 사회이고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많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유발시켜 왔다. 만약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대 유학 지도자들의 정신을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면, 그런 전략에 가로놓인 역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 II. 血緣的 유대

다양한 학파의 공자사상 연구를 집대성 주희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지자로서, 퇴계는 결코 완강한 보수론자는 아니었다. 그가 시대조류와 함께 하는 태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보낸 몇 장의 편지에서 분명하며 『退溪全書』에서도 발견된다. 이 중의 한 예는 1553년 후반 몇 가지 고대 의식을 복원함의 불가성과 관련하여 金而精(就礪, 1526년생)과 禁聞遠(蘭秀, 1530년생)에게 보낸 충고이다. 그는 이런 일이 강요되면 수행하는 사람에게 굴욕을 가져올 뿐이라고 믿었다.

부부관계에 대한 퇴계의 태도는 매우 개화되어 있었다. 기원전 627년에 살았던 「冀缺」에 대한 고전적 일화가 있다. 그것은 그가 농장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에게 식사를 가져오는 것과 관계된 것인데, 그와 그의 아내는 너무나 정중하고 서로를 위해주어서 그들은 마치 서로를 손님 대하듯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서로를 손님 대하듯 하는 것”(相敬如賓)은 동아시아에서 속담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똑같이 재현하기에는 너무 고결하고 어려운 이상적인 형태이다. 그것은 후대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는 거의 예가 되지 않았다. 퇴계는 두 차례 결혼했고 둘 다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각각 1527년과 1546년). 네 명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의 나이 30세인 1531년에 태어난 아들 李寂이 있었다. 그는 생각건대 퇴계의 첫 번째 아내가 죽은 후 소실에게서 얻은 아이인 것 같다. 1560년 퇴계는 그의 손자 安道(1541~1584)에게 글을 썼는데 아마도 그의 두 번째 결혼 후 적절한 결혼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그에게 훈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인간 관계의 시작이고 수없이 많은 즐거움의 근원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장 가깝고 가장 애정이 깊은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엄숙한 것이고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일컬어진다.(中庸 12장에서) “위대한 사람의 길은 그것의 가장 간단한 요소인 일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교제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예의범절과 상호 공경심을 잊어버리고, 충동적이고 모욕적이며 불경스러움으로 성적 유희와 불순한 남녀관계에 탐닉하고 심지어 굴욕적 폭력과 학대 등을 일삼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상호 공경심의 부족에 있다.

퇴계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인 李平叔(威亨)은 아내와 사이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69년에서 1570년 사이에 퇴계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하였다.

나는 자네와 자네의 아내가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듣고 있다. 어찌하여 그러한 불행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나는 남편과 아내가 고통을 겪는 원인에 대해 몇 가지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다. 어떤 여자는 매우 고집이 세고 사리에 맞도록 행하지 않으며, 어떤 여자는 지긋지긋하고 아둔하며, 어떤 남편은 방탕한가하면 다른 남편은 괴벽하며 터무니없기도 하다. 사람과 상황이란 것은 각기 매우 차이가 많아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의 원칙에서부터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의해 따돌려지게 되는 고집 불통인 아내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문제를 생각하고 자신의 양식을 시험하며 화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하기에 따라서 결혼의 과정이 유지되고 인간 관계가 고무되며 남편은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고집스런 아내도 그들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모든 원칙과 관습을 거부하고 반항하지만 않는다면 적절한 예의로 대접받아야 하며 이혼에 의해 쫓겨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고대에는 이혼당한 여인들이 재가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칠거지악이 그렇게 가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여인이 재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정절을 고려하여), 단지 감정의 불일치만을 이유로 이전의 아내가 길가를 배회하는 이방인이 되거나 적이 되는 것을 어찌 사람으로서 눈을 뜨고 볼 수 있겠는가?

그의 견해의 깊이를 더하고 결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평숙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이 글에서 퇴계는 심지어 자신의 개인적 경험까지 인용하고 있다 ;

“나는 두 번 결혼했는데 두 번의 경험 모두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 나는 감히 속 편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상황을 매우 조심스럽게 궁리해서 적절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 내 마음이 흔들리게되고 동정심이 적게 되도록 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중요한 관계를 고려치 않고 홀어머니를 걱정하며 어떻게 감히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나의 감정적 충동을 따를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퇴계의 마음이 남성이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봉건적인 체제 하에서 고통을 받았던 여성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퇴계가 1556년에 초안했던 일종의 사회 규약인 향약에서, “소실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를 적절히 보살피지” 못한 아내를 엄하게 벌하는 것을 지적하며,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는 한 남자의 정실 아내의 위치와 소실의 위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실의 자식에 대한 상복에 관하여 제자 鄭子中에게 답하여 1561년에서 1562년경에 쓴 글에서 퇴계는 “고대 사람들은 우리와 달랐다. 우리는 소실의 아이를 노예처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처럼) 동아시아의 가족제도 형태의 장점과 약점을 경험하면서 퇴계는, 가족은 나라의 기본적 단위이며 적절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족의 보루라는 사실을 강력히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퇴계는 대가족 제도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맏아들 李窩에게 준 가족 편지에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고, 夢(앞서 말한 퇴계의 손자 安道, 그의 별명은 夢齋였다.)이 이제 곧 결혼하게 된다. 나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번잡함을 싫어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나는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으로 이사해서 그 곳에 머무르고 싶다. 3대를 이룬 집안은 필요에 따라서는 분가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집을 짓고 최고 지휘소를 본 딴 별채에서 살았다.(원주: 宮이라고 알려진 이름은 고대에는 궁궐이 아니라 주거를 위해 따로 지은 집이었다.)

『退陶先生言行通錄』에 인용된 또 다른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부엌을 쓰지 않으며 함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자랑으로 여길 어떤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너의 아이들이 자랐고 그들이 결혼할 때면 그들은 자신들이 기거할 방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필요성의 문제다. 고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비록 그들의 경제를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같은 방에서 살림을 꾸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최고 지휘소이라 이름 붙여진 별채의 제도가 있었다. 너는 우리가 함께 살되 경제권을 나누겠느냐, 떨어져 살되 돈을 함께 쓰도록 하겠느냐?

퇴계가 가족의 문제를 생각했던 방식은 획기적으로 현대적인 것이었다. 만약 그가 오늘날 살아 있다면, 가족의 구조는 고스란히 보존하는 가운데, 자기 자식이나 손자들이 같은 집의 다른 곳에 살거나 다른 아파트와 같은 집에 살도록 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다.

### Ⅲ. 靑年과 學生 운동

일반적으로 말해 퇴계는 젊은 사람들을 좋아했고, 젊은 사람들과 학생에 대한 그의 태도는, 우리 시대의 학생의 힘이 정점에 달했던 60년대 후반과 관련해서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젊은 세대에 대한 그의 열정과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친구들로부터 어리석다고 비난을 받았는데 퇴계가 趙士敬(趙穆, 1524~1606)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인용한 비평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 나는 서울에서 편지를 보낸 친구로부터, 세심한 고려없이 내가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무라는 훈계를 들었다. 그는 내게 “이 젊은이들이 모두 영예롭고 총명하다고 자네는 확신하는가?”하고 나에게 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을 계속 했다. 내가 그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을 들며, 내가 서울로 돌아가면 나는 스승으로서 그들로부터 부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런 다음 그 친구는 나에게 물었다. “자네 정말 그렇게까지 인가?” 그의 말은 정확했고 상당히 정곡을 찌르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서 등에서 3일간이나 식은땀이 멈추지 않고 흘렸다……

아마도 1561년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安道에게 보낸 비슷한 성질의 편지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나는 鄭子精(鄭琢, 1526~1605)으로부터 다음의 내용을 전하는 글을 받았다. “한 대신이(서울에서) 말하기를 이황은 그의 제자인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을 경솔하게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조정에 쏟아져 들어오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너무 많은데, 그들은 전부 이황에 의해 지휘되고 조정됐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가.

퇴계는 당시 사립학교(서원)의 육성자였다. 1542년에 安裕(시호로 文成公으로 알려짐)의 집근처인 풍기군에 주세봉에 의해 세워진 백운동 서원이란 학교는 한국에서 서원의 시초였다. 퇴계가 1549년 풍기군수로서 周世鵬의 뒤를 이었을 때 그는 관리들을 시켜 조정에 현판과 서적, 땅, 그리고 그가 막 세우려 했던 이 서원을 위한 농노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 요구는 받아들여져서 명종은 1549년 이 대학에 자신이 직접 쓴 필적으로 紹修書院을 조각한 현판을 하사했다. 1567년 李大用(叔樑)이 達城縣에 또 다른 사립 학교인 研經書院의 수장이 되었을 때 퇴계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나는 학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숙고해 왔다. 이 나라에는 (공립)학교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 수는 학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사립대학의 필요성을 스스로 경고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립학교의 교과 과정이 교육 기관의 지시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고 학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대학 설립에 있어 계획을 세우고 현실화하는 데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

다. 그들은 사실 열정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爲己之學을 증진해 온 것이다……

모든 학자들은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관리가 되고 나라에 봉사할 기회를 허락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사립학교 출신의 학생들도 이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거의 같은 태도를 보였다. 비록 퇴계는 이런 식의 친편일률적 시험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자신도 1534년에 문과에 급제했었다. 그리고 1569년 그의 제자 禁夾之(應夾, 1526~1596)가 사립학교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세미나 일정이 과거와 같은 달에 잡혀 있음에 대해 퇴계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퇴계는 간단하게 禁에게 세미나를 취소하도록 충고했다. 왜냐하면 “이 순간 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시험장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한 것이 그 이유였다.

학생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퇴계의 시대에도 한국에서는 행정가들이 학생들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하여 공정한 배려를 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오늘날에 발생하는 문제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교만, 자만, 그리고 남용적인 언사 등은 특히 주의를 받아야 한다. 1556년 매우 불행한 사건이 앞서 밝힌 서원에서 발생했다. 이 대학의 책임자 급에 있는 사람인 金仲文이라는 사람은 거만하고 무례하여 종종 학생들을 어린애로 취급했다. 대중적 분노가 야기됐고 학생들은 봄에 집단으로 대학을 떠나버렸고 거의 1년 내내 출석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김종문은 불법행위로 인해 공식으로 직위에서 해임되었겠지만, 이 서원에 위패가 모셔진 문성공 安裕의 후손인 영천군수 安璫의 영향력에 의해 그는 다소간 보호를 받고 있었다. 초기에 맺었던 이 대학과의 인연과 지역성 때문에 퇴계는 이러한 편애에 대해 다소 직접적인 비판과 더불어 몇 가지 충고를 담은 개인적 편지를 써서 안상에게 전했다.

김중문은 아비하고 진정한 학자가 아니다. 그는 주세붕이 서원을 설립할 때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周景遊(즉 주세붕)에 의해 발탁되었다. 그리고 당신 뿐만 아니라 몇몇 대신들도 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바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학생들을 마음대로 내 몰고 서원을 텅비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의 강력한 배경을 과시함으로써 이 나라에서 학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창피를 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다른 잘못들은 제쳐두고 이 큰 실책을 요점으로 단순화해보자. 만약 당신이 그가 남몰래 그리고 고의로 행한 것을 간단하게 시험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공자께서 한 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군가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해서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가?”(14장 7절) 이것을 하는 데 실패한다면 중문에 대한 당신의 친절은 실제로는 그를 해치고 있는 것이며, 그 대학에 대한 당신의 공경은 실제로는 그것을 망치는 것이다.

그는 그 관리에게 충고를 이으며 말했다.

오늘날 풍기의 黃仲舉(俊良, 1517~1563)와 영천의 朴重甫(承任, 1517~1587)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매우 높이 추앙받고 있는 두 중진학자들이며 그 지역의 축복이다. 만약 당신이 공손하게 그들을 각기 방문하여 그들과 더불어 그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고 그 대학에서 학생들과 모임을 개최할 날짜를 정하여, 이 두 학자들이 그 지역 내에 있는 학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이도록 촉구하면 그들은 구름 떼같이 모일 것이며 아무도 감히 늦지 못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한 때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승려 普雨에 반대한 1565년의 학생 저항에 비하면 이 사건은 미미하고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말해 불교의 영향은 지난 시대 동안에 쇠퇴되었다. 그러나 仁宗 임금의 1545년에 세상을 뜨고, 그의 이복 형제인 明宗 임금이 그의 뒤를 잇자 명종의 어머니 尹妃가 황태후가 되어 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승려 보우의 후원자였으며 불교의 영향이 정치에 재점화된 것은 그녀의 시기였다. 1565년 여름에 황태후가 죽자 수도권 지역에

있던 儒生들이 반불교운동을 전개하였고 보우를 축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허락되지 않자 그들은 서원을 비우고 과거시험을 일괄적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비록 어떤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퇴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퇴계는 정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러한 무모한 태도에 못내 심기가 불편했다. 그러나 그는 학생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오늘날 대학생들이 요구할 것이 있을 때 그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들은 농성을 한다. 그들이 서원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들은 서원으로 되돌아온다. 그들이 패주하여 해산할 때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린다. 그들이 다시 모일 때는 그들은 질주를 한다.” 퇴계의 공감과 이해는 그가 학생들의 많은 좋은 점을 알 수 있게 했지만 그는 그들의 한계도 또한 알고 있었다.

대학생들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수확도 없이 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스스로 모여 상주에서 올라온 또 다른 유생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성명서를 공표했는데 그것은 서울의 학생들이 제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또한 수업을 재개함에 있어서 서울 지역학생들의 무원칙한 행동을 비난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라도 조정에 나가서 탄원하기를 원했다. 그들이 퇴계에 의해 그 일을 중단하도록 충고받았을 때 한 학생이 그에게 대꾸했다. “선생님은 유학자이시고 자주 충도를 도모하십니다. 우리는 촌놈들이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과격한 행동을 하고자 해도 선생님은 아마도 개의치 않으시겠지요?” 이에 퇴계가 말했다. “유생들이 충도를 택할 때도 그들은 여전히 실패할 것을 염려한다. 만약 너희들이 과격한 경로를 택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것 같은가?”

#### IV. 宗敎에 대한 태도

여기서 종교라 할 때는 나는 불교와 도교를 말한다. 비록 “三敎”라는 용어가 퇴계 이전 여러 세대 동안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16세기 한국에도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지적으로 陳白沙(獻章, 1428~1500)와 王陽明(守仁, 1472~1529) 두 사람에 대해 공히 좋지 않게 생각하여 그들 둘은 禪(불교)에 너무 근접해 있다고 비난했지만, 퇴계는 불교의 정치적 경제적인 연루성 때문에 아마도 불교를 더욱 싫어했던 것 같다.

1568년 선조 대왕이 왕위에 있을 때 퇴계는 일련의 중요한 經筵을 조정에서 개최했는데, 그는 왕에게 戊辰六條疏를 설명했다. 네 번째 조항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폐하의 보잘 것없는 신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의한 동방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불교며, 전조 고려 왕조가 그 시대를 잃은 것은 고려가 불교를 경배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왕조의 이렇듯 번창하고 개화된 행정으로도 아직 그것의 뿌리를 박멸하지 못하고 있고, 종종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시대가 부패할 때는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선왕들께서는 다행스럽게도 그 폐해를 발견하여 즉시 그것을 쓸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붙게 되기를 기다리는 잔재와 조수에 씻겨나가지 않은 여파가 아직 있습니다.

선에 대해 그가 그렇게 싫어했지만 그는 그의 국가적 자부심에 의해 야기되는 학설의 오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수양에 있어 悟의 중요성을 그에게 언급한 바 있는 그의 다른 제자 南時甫(彦經, 1528년생)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남시보에게 수입된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고했다.

너의 편지에서 너는 수양의 과정에 있어서 悟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나는 너에게 悟는, 히말라야로부터 전래된 비범하고 갑작스런 각성에 의

해 생겨났으며 우리의 가르침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퇴계의 불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적대적이었지만, 그는 불교도들의 설법과 경배가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를 넘어 한국사회에서 매우 견고하게 잠식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계는 필수적으로 지적인 기초에서 그것과 싸웠다. 불교 수도원이 일정 수의 승려 후보를 임명하자는 문제에 대해 조정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퇴계는 그 논쟁에 자기 자신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후에 퇴계는李大成(文梁)에게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공직에 있는 관리가 조정의 논쟁에서 자기의 견해를 말하기를 피하는 것은 크나 큰 오류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제에서는 개인의 이득과 손실은 결코 생각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불교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말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았다. 왜냐? 그 이유는 그 당시 쟁점은 불교를 널리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단지 승려들의 성직임명의 몇 가지 측면이 다른 것보다 행정적으로 훨씬 더 나쁜 것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불교의 공표에 대해서라면 그것은 이미 과거에 패배한 전투이며 (우리 유학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주제를 지금에 다시 들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한 국면에서, 만약 성균관에서 교육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정의 견해를 따르고 승려직 임명의 주제에 대해 논쟁을 한다면, 불교 가르침의 보급에 대해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불교의 수용을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 논쟁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성공의 한 가닥 기회조차 세우지 못했을 것이다.

지적인 논점에서 퇴계는 특히 왕양명과 그의 가르침인 선에 대해 생각을 달리했다. 그는 洪應吉(仁佑, 1515~1554)에게 말했다. “선불교의 공부는 연고제에 비교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그것에 가까이 하게 되면 그는 더럽혀지게 된다. 왕양명은 그것을 훨씬 더 유혹하게 만드는 그의 수사법과

함께 그것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퇴계가 賀醫閻(賀欽, 1437~1511)의 문집을 읽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의려는 첸 보샤(Chen Boshu)의 제자였으나 그는 올바른 길을 추구함에 있어 깊은 신조가 있어서, 그의 스승 보샤의 선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1558년 李叔獻의 나이 스물 둘이고 그가 일찍이 불교에 심취되었다가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는 고백을 했을 때, 이숙헌에게 쓴 퇴계의 편지에서 그는 말했다.

(유교사상에 있어서 심대하게 중요한 두 가지 중)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소탈한 마음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어떠한 편견도 있어서는 아니되며, 수양은 결코 서두르거나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도 아니된다. 그것은 理가 스스로 스며들 때까지 평생의 과제이며, 그 때야 비로소 얻은 것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것은 진지함인데 그것은 집중을 통해 이를 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진솔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정진하고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데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갑작스런 悟를 통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불교도들은 단지 황홀경에서 얻어지는 허상만 보았을 뿐이다; 그것이 어떻게 “대 과업을 완수한 것”으로 묘사될 수 있겠는가? 理의 철저한 탐구는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행동의 진지함은 오직 흠여지지 않은 주의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퇴계의 도가 사상에 대한 이해는 그가 불교사상을 아는 것보다 더욱 깊이가 있어 보인다. 그는 老子와 莊子를 매우 싫어했는데 이는 그들이 “과장과 환상에 심취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사람으로 하여금 성인을 모독하고 규칙과 의식을 알보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퇴계의 종교적인 도가 사상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무리가 없었는데, 특별히 그는 도가들의 건강유지 방법에는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전집 중 두 부분에서 그는 『參同契』 또는 *The Tallying Ideas of Daoist Cultivation with the Book of Change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魏伯陽에 의해 후한 시대에 편집된 도학자들의 고전이다. 퇴계는 擊蒙으로 후에 알려진 작품

의 내용을 토의하는 글을 그의 제자인 朴澤之(朴雲)에게 보냈다. 격몽은 고대 성인이나 역사적 인물들이 한 말을 편집한 것인데 육체적 운동에 대한 몇 가지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이 편지의 한 부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너의 글에서 너는 마사지, 당기기, 비틀기, 깨트리기와 압박하기, 뒤로 잡아당김에 의한 방해, 근육 만들기과 자유롭게 풀기[피부아래에 있는 혈액] 등의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도가들이 명상에서 실시하는 기 수양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다. 이것들이 위보양이 “체내에 있는 수백 개의 정맥들이 큰 냄비에 있는 끓는 물처럼 비등하도록 유발시킨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들인지 또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걱정이 된다. 남자가 성관계의 기술을 통달하는 방법도 또한 도가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논쟁들이 남게 될 수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인용된 것은 參同契(道藏 623)에서 발견된다. 다른 문하생 李宏伸(德弘, 1541~1596)이 1566년 퇴계에게 參同契에 있는 도학들의 수양방법이 맹자에서 발견되는 기의 영양분을 “잊지 않고”, “보조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설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선생은 대답하기를

참동계에서 丹의 생성을 위한 것으로서 火候는 아주 뛰어나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수양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록 주희 선생께서 그것을 빌어 맹자에서 기의 조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그 과정은 유사할 지도 모르지만, 도가들의 조장은 丹을 목표로 삼았고, 반면 우리는 마음의 양성에 그 목표가 있다.

비록 퇴계가 마음의 영성상태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는 육체의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대신 許의 전집에 있는 동시대 도학자 李守谷에 의해 새겨진 양생설의 8조목에 대해 1553년에 쓴 후기에서 퇴계는 말했다: “이 8조목의 내용과 이수곡의 필적 둘 다

를 공부하고 나서 나는 나의 육체적 영양상태에 대해 깊이 염려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주희가 왜 그렇게 위백양의 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제 地仙이 되었다; 나는 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가?” 그는 심지어 비슷한 종류의 몇 가지 수양을 행했을지도 모른다. 셋째 동생(다른 계산으로는 넷째 동생으로도 알려짐)인 李瀼에게 1549년에 쓴 편지에서, 퇴계는 그에게 “일백 개 맥의 중심”인 湧泉穴이라고 알려진 발바닥을 문지르는 운동을 권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열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종기와 같은 많은 다른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 사적으로 퇴계는 불교 승려와 도가 선인들 모두 다 차별없이 친근하게 지냈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하는 몇 편의 시를 쓴 바 있고, 1548년 그가 단양 군수로 재직할 당시 병을 얻었을 때는 丹山道院에 머무르기도 했다. 1557년부터 1561년에 걸쳐 자신의 도산서당을 건립할 때 그 공사는 法蓮과 淨一이라는 두 불승에 의해 감독되고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법련은 龍壽寺의 승려인데 鷄林(신라의 또 다른 이름; 이것은 경주로부터 남쪽으로 4리의 거리에 있음)으로 떠나서 죽기 전 특정 기간 동안 퇴계를 위해 일을 했다. 정일은 그의 뒤를 이었다. 퇴계문집에 이은 속집에 법련에게 선사한 시가 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려 있는데 거기서 퇴계는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법련은 전혀 못마땅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종교에 대한 퇴계의 태도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것은 상을 당한 후 服을 위해 7주 동안 매 7일 마다 지내는 7일제의 수행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명백해진다. 퇴계는 이것이 불교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하지만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충고에 유의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이것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들의 바램은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가 용납할 수 없었던 유일한 종교행사는 마술과 무속이었다. 그의 아

들 천의 집에 자주 무당이 드나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퇴계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무당이 너의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규칙에 엄청나게 반하는 것이다. 어머니 시대 이래로 우리는 미신을 결코 믿은 적이 없으며, 나는 무당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항상 거부해 왔다. 이것은 고인들의 가르침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감히 우리 가문의 법도를 어길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어찌 하여 너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생각을 가벼이 할 수 있는나?

만약 퇴계가 우리 시대에 살아 있어서 전자산업이 꽃피어 있는 현대화된 도시에서도 무속과 미신적 신앙이 여전히 번창하고 비상식적 관습들을 발견한다면 그는 우리들이 보다 분석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 V. 分析的 사고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서구학자들은 분석적 사고를 견지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통 중국 철학자들은 비록 많은 종합적 이해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적 사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긴 역사적 배경, 소화해 내야 할 산더미처럼 엄청난 분량의 자료, 기계적 암기에 의한 학문에 대한 압박감, 분석력이 다소 떨어지는 중국어 문법이 갖는 특성 등에 기인할 것이다. 동시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의 몇몇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주희는 보다 분석적이었고, 한국에서 주희 가르침의 정통인 퇴계 또한 그러했다.

분석의 과정은 물질이나 문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의깊게 시험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철학적 쟁점 사항 중의 하나는, 理는 하나

이고 그것의 발현은 많다는 것이 인식될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외부(사물)와 내부(자아)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퇴계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내부와 외부, 섬세함과 거칠음, 그리고 대상과 자신 사이에 있어 아무런 구분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은 대상이나 사물 그 자체의 문제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이나 사물은 자신의 외부이다. 따라서 이가 하나라고 해서 이러한 무수히 많은 사물과 대상이 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퇴계는 사람들이 더욱 사려깊게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이 집중력을 가지고 사물의 요인을 탐구하는 데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1557년에 그는 金惇敍(富倫, 1531년생)에게 편지를 썼다.

“이기적인 마음은 그 생각이 생기자마자 나타나게 된다”라고 일컬어 저왔다. 이것은 마음이 이미 침전된 사람들에게는 사실일지도 모른다(번뇌와 욕망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義理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핀다면 이기심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은 생각의 사무실에 속한다. 생각에 의해서 그것은 얻는다[사물의 올바른 견해] ; 생각하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렇게 하기를 실패하게 된다……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그의 본질의 보다 고상한 분야의 최고의 상태에 빨리 서게 하자, 그러면 열등한 부분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6장 15절)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은 사람들의 사고의 부족에 기원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요즈음 사람은 “이기심은 생각이란 것이 시작되자마자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같은 편지에서 그는 김에게 사무를 취급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집중에 의해서라는 것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의 사항이나 사건 뿐이며,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한 가지 이상의 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좌우에서, 여기 저기서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왜 사람은 대응함에 있어 갑작스럽게 불쑥 말을 꺼내면서 혼란스럽고 헝클어진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연결 고리로써 통제하고 작용하는 주인처럼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것이 얻어지게 될 때 모든 것은 제위치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면 사물의 사소하고 세밀한 것들은 마음의 고요한 질서를 가지는 육체의 사지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며, 비록 복잡함이 있다 할지라도 버려진 채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퇴계의 분석적인 사고는 그의 수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였다. 그가 어떤 군의 군수로 있을 때 그는 토지 측량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였다. 친구 및 학생들과 더불어 학문적 관심사들을 토론하는 수많은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요점을 체계적으로 항목화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문인들에 의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시도였다. 奇明彦(1527~1572)과 함께 四端과 七情에 대하여 토론한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퇴계는 그 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분석적 사고가 부족함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말했다:

오늘날의 논쟁은 고대학자들에 의해 명료하게 표현된 전술한 견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동일한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싫어한다. 그들은 균질한 전체를 좋아하지만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증을 낸다. 그들은 사단이나 칠정의 근원을 탐구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 대신 그들은 理와 氣 둘 다를 각기 소유하고 있고 각각이 선과 악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것들에 대해 일반화해버렸다. 그리고 그것들은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理는 약하나 氣는 강한 것이라거나; 氣는 그것의 자취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반면 이는 추상적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몇 명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에는 기의 자발적인 발견은 이의 실체에 다름 아니라는 정도가 되고 만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기는 동일한 것이라고 믿고 그것들은 구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는 또 말했다:

어떤 사람의 학문적 성격의 논설에 있어, 만약 그가 분석하는 것을 싫어하고 둘 또는 몇 개의 분야를 하나로 [자유롭게] 결합하기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고대 학자들에 의해 “dates 전체를 통째로 삼키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철학적 논쟁의 미묘함을 강조하면서 그는 말했다:

義理(문자적으로는 정의의 원칙, 신유교주의의 용어에서 철학적 논쟁을 지시함)의 공부는 극단적으로 미묘하다. 사람은 모름지기 넓게 띄어 있어야 하며 목표를 높이 지녀야 한다. 편견된 사고를 너무 강하게 고집해서는 안 되지만, 길의 방향을 관찰할 때는 냉정하고 소박해야 한다. 차이는 유사성에서 발견될 수 있고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하나의 명제가 둘로 나누어질 때 그들의 공통적인 근원에는 아무런 해도 가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때는 혼합됨이 없이 그들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퇴계 이전의 역동적인 사상가였던 왕양명은 매우 명확하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미를 구하는 것은 지식에 관련된 것이고 반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행동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미는 사랑이 있고 나서야 보인다. 먼저 미를 보고 나서 그것을 사랑하고자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진술을 깊이 분석하고 나서 퇴계는 이것은 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했다:

의리의 경우 그것은 다르다. 먼저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먼저 고무되지 않고는 행동할 수 없다. 인간의 외부적 행동은 내부적으로 신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성립시키지는 않는다. 사실 선행을 하고서도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이 좋은 것인 줄은 알면서도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이 있고 나서야 선행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 VI. 結 論

16세기 후반 세기에 걸쳐 퇴계는 한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유학자의 한사람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에서 설명된 많은 그의 생각들은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문제와 근심과 필요성과도 너무나도 닮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가족관계의 유지의 중요성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했지만, 그러면서도 환경과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여성을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들에 대해 엄청난 연민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젊은 세대들과 친근하게 지냈고 순수한 동정심으로 학생운동을 지원했으나 그 한계도 알고 있었다. 유교 사상 이외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태도는 최소한으로 말해서 관용적이었고, 학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는 분석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역사적 과거와 변화 무상한 현재를 결합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전통적 동아시아 사상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해야 한다는 바램이 있다면, 퇴계에 대한 더욱더 깊은 연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과제가 될 것이다.

(퇴계학 연구원 譯)